

## 심미성을 고려한 전치부 임플란트 수술의 장기간의 결과

신 현 승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상악 전치부 식립된 임플란트 연조직의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치은퇴축으로 인한매식체 금속 색조의 발현은 통상적으로 얇은 치은 두께 및 부적절하게 설정한 전치부 협착 골의 두께와 연관된다. 이러한 치은 퇴축의 원인은 반드시 골의 열개(dehiscences)와 연관되며, 얇은 치은 두께인 경우 이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꺼운 치은 두께를 갖는 경우 상부 치조골의 흡수에 저항한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고난이도 술식이며, 식립시에 적절한 협착 골의 두께를 보존 혹은 이식하여 증대하는 것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열개나 치은 퇴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조직 혹은 경조직 이식을 동반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생존율보다 성공율이 중시되는 현재의 임플란트 치의학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연조직 및 경조직 이식을 동반하여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은 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시치아로 수복한 증례들을 통해 환자와 임상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학력 및 경력

-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치주학 전공).
- \*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 \* 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외협력이사  
대한치주과학회 법제이사